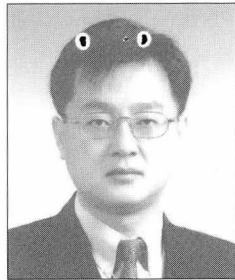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류 연 기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 02-2110-6685    yk1234@me.go.kr

〈필자약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 환경부 영산강환경관리청 총무과장, 운영과장, 수질정책과, 지구환경과, 차관비서관, 국무총리실 파견, 폐기물정책과, 대기정책과, 정책총괄과, 기획예산과, 국립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 I. 머리말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올해로 성년의 나이를 맞이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며 이제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의 선진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고 존경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일부 대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 II. 환경경영의 국내외 동향

최근 기업경영에서의 화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완수이며, 이는 세부적으로 기업이 환경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구현하고, 사회공헌을 통해 자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의 의



미한다. 특히 이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고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기업의 유·무형의 가치가 유조선 사고, 오염물질 유출사고 등 단 한 번의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국내외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해외 선진기업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환경관리 차원을 벗어나 기업의 전 가치사슬(전략, 조직, 재무, 생산, 제품, 마케팅, 구매, 커뮤니케이션)에 통합하여, 기업의 핵심가치와 전략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환경경영전략을 개발하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전략실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의 진척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의 비재무(非財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기업들의 경우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서 환경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저감, 환경사고 예방, 그리고 환경관련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서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제너럴일렉트릭(GE)은 자신들이 유행시킨 '환경이 곧 달러'라는 말을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고 있다. GE는 2005년 환경분야에서 10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세계적인 정보기술(IT)업체인 IBM도 환경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빅그린 이노베이션(Big green innov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그 규모는 IBM의 생명과학 프로그램보다 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III. 환경부의 환경경영 지원정책 현황

#### 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07년 9월말 기준으로 176개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의 환경관리 일반현황, 오염물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지난해의 이행실적 및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상적인 지도·점검의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게 된다.

#### 2.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04년에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로드맵,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 마인드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06년에는 기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 기준을 보급하였다.



### 3. 선진 환경경영기법 확산·보급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운영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고서의 발간, 환경성과평가, 환경회계 등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확산·보급 사업을 '01년부터 '06년까지 추진하였으며, 총 170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사업 현황 및 참여업체 수〉

구분	계	1차 ('01. 9~'02. 4)	2차 ('02. 7~'03. 4)	3차 ('03. 8~'04. 4)	4차 ('04. 8~'05. 4)	5차 ('05. 8~'06. 4)
계	170	15	31	34	50	40
환경보고서	51	15	10	13	13	-
환경성과평가	53	-	15	10	13	15
환경회계	42	-	6	6	15	15
환경리스크평가	24	-	-	5	9	10

### 4.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제품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원료물질 취득 및 제품의 사용, 운송, 폐기와 같은 전 과정 단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하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를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비용절감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01년부터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에코디자인의 효과적인 보급·확산을 위해서 국내 기업이 에코디자인에 관한 사전지식 정도가 다름을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개념에 대한 집체교육과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 현장적용 교육의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해 왔다.

### 5.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촉진

기업체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소비활성화와 환경성 평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녹색화를 위하여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 표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은 2004년 2,600억원 규모에서 2006년 8616억원 규모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친환경상품 수요확대가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Ⅶ. 앞으로의 정책방향

###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

기업은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다 활발한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 등의 형태로 다양한 환경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정보 공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자발적 환경정보 공개로 우려되는 정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환경정보 D/B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유통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평가 활성화

최근 들어 각국 정부, 시민단체, 국제사회는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의 선진 금융기관들은 환경문제를 경영상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의 환경위험관리를 금융회사의 전반적 위험관리체계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 금융기관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환경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의 환경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기반이 되는 환경정보 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여신과정에서 환경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개선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그 동안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제도로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제도의 틀을 넘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방식보다 기업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녹색구매 활성화와 친환경상품 인지도 제고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인터넷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전시회('07.11) 등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기업은 환경경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기업과 함께 국내의 환경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